

(인도자용)

행복의 역설 “팔복” 6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열기

남자는 절대 못 푸는 문제

남녀가 토요일 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일요일 날 친척 중에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하기 때문에 6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돼서 일어났는데 12시 반쯤 여자한테 '아직 자?'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자는 '아니 방금 일어났어'라고 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여자가 화가 난 이유를 텍스트 내에서 찾아야할 듯싶지만 상황이해가 쉽지 않다. 여자가 화난 이유는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도 남자는 일요일 6시까지(병문안을 가기 전까지) 여자와 데이트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늦잠을 잤기 때문'

여자는 절대 못 푸는 문제

남자의 사랑이 식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헤어지자 했다. 여자는 남자의 번호를 헤어지자마자 바로 지웠다. 그러나 남자는 헤어진 지 세 달이 지나도 여자번호를 지우지 않았다. 이유는? 귀찮아서

▣ 위의 글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거나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재미있게(^^)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태복음 23:13-28

13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없음)

15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 당신 주변에서 겉과 속이 다름으로 인해 힘들어 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했던 것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의 차이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16-17,21- 22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18-20절	제단위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 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3절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26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 면 겉도 깨끗하리라

▣ 본문 27-28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이 중요하다.

2. 아래 내용을 읽고 성경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팔복 중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마태복음 15:18-19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
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
짓 증언과 비방이니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니라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마음은 언제나 한 인간의 내면, 그 사람의 개성의 자리로 여겨진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나타낸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신 마음의 상태는 당신이 적의를 품고 있는지 은혜를 베푸는지, 자기 연민을 추구하는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지, 인간의 비참함을 마시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지 말해준다.

우리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 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생각 하는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서 남아나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음을 이야기 한다. 진실됨을 이야 기 한다.



적용과 결단

우리 속담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통해 속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과 항아리와 그릇을 씻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들은 작고 사소한 채소의 십일조까지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돌보이게 하기 위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세리나 부도덕한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상태는 당신이 적의를 품고 있는지 은혜를 베푸는지, 자기 연민을 추구하는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지, 인간의 비참함을 마시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지를 말해 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결함에 대한 동기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동기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윤리나 선함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겉모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